

# 三國遺事に 나타난 一然의 고려시대인식

金 泰 植\*

- |                             |                          |
|-----------------------------|--------------------------|
| 머리말                         | Ⅲ. 고려 중기에 대한 역사인식        |
| I. 삼국유사소재 고려시대 관계<br>기사의 분류 | Ⅳ. 무신집권기에 대한 시대인식<br>맺음말 |
| Ⅱ. 고려 초기에 대한 역사인식           |                          |

## 머 리 말

《三國遺事》는 여태까지 韓國古代史 연구 분야에서 《三國史記》와 더불어 필수적인 兩大史書의 하나로 여겨져 왔으며,<sup>1)</sup> 특히 거기에는 고대적인 사유방식이 유교적 粉飾없이 거의 원형대로 표출되어 있다고 하여<sup>2)</sup> 古代思想史 부문에서 그 사료적 가치가 크게 인정되어 왔다.

반면에 高麗史의 관점에서 볼 때 《삼국유사》는 사료로서는 충분히 이용되지 못하고 다만 史學史的으로만 활발히 연구되었을 따름이다. 그것은 삼국유사에 삼국 및 그 이전 시대에 관한 기록뿐만 아니라 고려시대에 관련된 기록도 상당수 있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소홀하게 여겨온 탓이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이러한 문제점은 사학사방면의 연구성과에 대해서도 일정한 제약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史學史的인 측면에서 삼국유사는 고려 후기의 대표적인 史書로 주목되고 있으며, 삼국유사를 찬술한 一然의 역사인식을 기존연구에서는 대체로 民族的 佛敎史觀의 범주에 넣어 생각해 왔다.<sup>3)</sup> 즉 삼국유사에는 불교신

\* 사학과 전임강사

- 1) 崔南善 <三國遺事解題> 《增補三國遺事》 1954
  - 2) 金哲垓 <高麗中期的 文化意識과 史學的 性格> 《韓國史研究》 9, 1973
  - 3) 李基白 <三國遺事の 史學史的 意義> 《韓國의 歷史認識》(上), 創作과 批評社, 1976
- 金泰永 <三國遺事に 보이는 一然의 歷史認識에 대하여> 《慶熙史學》 5, 1974

앙을 옹호하려는 관념이 나타나고 민족적 자주의식이나 이 민족에 대한 저항의식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민족의식이 나타난다는 근거로서 檀君神話가 수록되었다는 사실을 들고 있을 뿐인데, 일연이 고려 후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가 언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지적을 하는 것 만으로는 논리의 타당도가 부족하다고 하겠다.

또한 삼국유사에 나타난 역사인식이 삼국사기를 긍정하는 것인가 부정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兩論이 있다. 과연 삼국유사를 찬술한 일연은 고려 중기의 硬化된 귀족정권 및 그와 연루된 유교정치이념에 대해 반발하는 관념을 가지고 있었을까,<sup>4)</sup> 아니면 고려 중기의 유교적 합리주의의 산물인 삼국사기를 긍정하며 보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까?<sup>5)</sup>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도 일연의 고려 중기에 대한 인식태도를 직접 다루지 않고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외형적 비교만을 통해서 결론짓기는 어려운 것이다.

삼국유사에 나타난 역사인식에 대한 기존의 평가가 대세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연이 고려시대 중기 및 당시 사회에 대해 어떠한 관념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한 추론과정이 결여된채로 내려진 평가는 기본적인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고려시대에 대한 일연의 인식은 그 자신의 고려관계 서술 속에서 찾아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삼국유사를 다시 살펴볼 때, 기기에는 직접적으로 고려시대에 관한 기사를 포함하고 있는 조목의 수만도 자그마치 30條나 있으며, 이는 삼국유사의 총 9篇 137條 중에서 5분의 1을 넘는 분량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삼국유사 소재의 풍부한 고려관계기사를 시대별로 분류하여 그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일연의 고려시대 각 시기에 대한 인식태도를 구체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金相鉉 <《三國遺事》에 나타난 一然의 佛敎史觀> 《韓國史研究》 20, 1978

高翹晉 <《三國遺事》撰述攷> 《韓國史研究》 38, 1982

4) 金哲堧, 앞 논문, p. 59

李基白, 앞 논문, p. 120

金泰永, 앞 논문; 《韓國의 歷史認識》(上)에 재수록, 1976, p. 139

5) 金相鉉, 앞 논문, p. 29

高翹晉, 앞 논문, pp. 53~54

## I. 삼국유사소재 고려시대 관계기사의 분류

삼국유사는 기본적으로 고구려·백제·신라 등의 역사를 다룬 사서이지만, 그것은 여타 실화형태의 역사인식의 주류와 마찬가지로 전통의 당대적인 재인식이라는 면을<sup>6)</sup> 강조하고 있다. 그 결과 삼국유사는 통일신라 이전까지의 실화 수록에 그치지 않고, 그 사건·사적들이 삼국유사 찬술 당시인 고려 후기 현재에도 상당한 관련을 유지하고 있거나 아직까지 그 자취를 남기고 있다는 것을 여러가지 형태로 서술하고 있다.

삼국유사의 내용 중에 고려시대의 사건이나 상태를 유추할 수 있도록 하는 기사는 230餘 項目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약 80件은 단순한 역사지명의 고증에 해당하고,<sup>7)</sup> 나머지 150여 항목은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의 역사적 事蹟들이 고려시대를 통하여 계승되는 상태를 설명한 것이다. 그 150여 항목중 약 90건은 과거의 사적이 찬술 당시까지 전해 내려온다는 점을 간단히 언급한 정도이고, 나머지 60여 항목은 고려시대 각 시기의 사건을 어느 정도 설명해 주고 있다.

前者의 약 90건은 과거의 전통문화가 아직도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기사들로서, 鵝述神母의 사당이 지금도 있다거나,<sup>8)</sup> 王后寺는 아직까지 許王后의 복을 받들고 있다거나,<sup>9)</sup> 文殊가 왔던 眞如院에 지금은 上院寺가 자리잡고 있다거나<sup>10)</sup> 하는 정도의 간단한 것들이다. 그 현존하는 전통문화의 例로서 제시된 것은 사찰·불교문화관계의 것이 70건 정도

6) 金哲煥, 앞 논문, p. 82

7) 단순한 지명고증의 사례는 삼국유사의 全篇에 걸쳐 분포하고 있으나 역시 紀異篇에 가장 많으며, 그 예로서 古朝鮮條의 「立都阿斯達[今白岳宮是]」등이 있다.

8) 《三國遺事》 권1 紀異2 奈勿王金提上條

「久後夫人不勝其慕 率三娘子上鵝述嶺 望倭國痛哭而終 仍爲鵝述神母 今祠堂存焉」

9) 《三國遺事》 권3 塔像4 金宮城婆娑石塔條

「逮第八代銜知王二年壬辰 置寺於其地 又創王后寺〔在阿道訥祗王之世 法興王之前〕至今奉福焉」

10) 《三國遺事》 권3 塔像4 臺山五萬眞身條

「如是五萬眞身一瞻禮 每日寅朝 文殊大聖到眞如院 今上院 變現三十六種形」

로서 가장 많고 그 밖에는 사당·체사관계 및 기타 전승류이므로, 찬자 일연의 관심이 어느 곳에 집중되어 있는가를 대략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일연의 고려시대 인식을 살펴볼때 기본자료가 되는 것은 後者의 64항목으로서, 이는 고려시대의 역사·문화에 대하여 찬자의 구체적인 언급이 있는 부분이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皇龍寺九層塔은 光宗代에 베풀어졌으나 顯宗代에 다시 건립되었다든가,<sup>11)</sup> 또는 睿宗代에 宋에 간 사신이 佛牙를 가지고 왔다는 기사처럼<sup>12)</sup> 적어도 고려 어느 王代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은 삼국시대 이후의 기사인데도 불구하고 찬자 일연에 의해 의식적으로 수록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종합 정리하면 찬자의 고려시대에 대한 인식 또는 그와 관련된 삼국유사 찬술의도를 파악하는데 근본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우선 자료의 소재를 소개하면 <표1>과 같다.<sup>13)</sup> <표1>에서 보아 삼국유사 소재 고려시대 관계기사는 30條目에 걸쳐 있는데, 그 중에서 無極의 追記인 關東楓岳鉢淵鼓石記(義解篇)를 제외하고 나서 일연이 편찬했다고 추정되는 것은<sup>14)</sup> 29條에 달한다. 그 29條의 분포상황을 보면, 王曆篇에 1條, 紀異篇에 7條, 興法篇에 1條, 塔像篇에 13條, 義解篇에 2條, 神呪篇에 1條, 感通篇에 2條, 避隱篇에 1條, 孝善篇에 1條가 있다.

11) 《三國遺事》 권3 塔像4 皇龍寺九層塔條

「至本朝光宗即位五年癸丑十月 第三霹靂 現宗十三年辛酉 第四重成」

12) 《三國遺事》 권3 塔像4 前後所將舍利條

「大宋宣和元年己卯〔睿廟十五年〕 入貢使鄭克永·李之美等所將佛牙 今內殿置奉者是也」

13) <표1>은 《삼국유사》의 내용 중 고려시대 관계 기사를 내포하고 있는 條目들의 명칭을 各篇別로 배열한 것이다. 다만 王曆篇 太祖代의 기사는 이를 한 條라고 간주하기 어려우나 年表上 註기제내용의 기사로서는 조금 특이하므로 일단 다른 條들과 동등하게 취급하고자 한다.

14) 삼국유사의 편찬을 然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연구성과로 보아 별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간행은 일연이 말년에 하였다는 견해와 그의 제자인 無極이 하였다는 견해가 제출되어 있다.

金相鉉 <《三國遺事》의 刊行과 流通> 《韓國史研究》 38, 1982

柳錫一 <三國遺事의 文獻變化樣과 變因> 《三國遺事研究》上,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83

蔡尚植 <至元 15年 (1278) 仁興社刊 《歷代年表》와 《三國遺事》> 《高麗史의 諸問題》(邊太變編), 三英社, 1986

〈표1〉 삼국유사 各篇別 고려시대 관계기사 보유 條 일람

篇名	條目名	條目數	篇當條目數
王曆 1	太祖	1	
紀異 2	樂浪國, 五伽耶, 新羅始祖赫居世王, 天賜玉帶, 金傅大王, 後百濟甄萱, 駕洛國記	7	29
興法 3	寶藏奉老普德移庵	1	6
塔像 4	迦葉佛宴坐石, 皇龍寺九層塔, 皇龍寺鐘, 三所觀音衆生寺, 前後所將舍利, 洛山二大聖觀音正趣調信, 魚山佛影, 臺山五萬眞身, 天龍寺, 伯嚴寺石塔舍利, 有德寺, 五臺山文殊寺石塔記	13	31
義解 5	寶壤梨木, 關東楓岳鉢淵蔽石記, 心地繼祖	3	14
神呪 6	明朗神印	1	3
感通 7	仙桃聖母隨喜佛事, 郁面婢念佛西昇	2	10
避隱 8	包山二聖	1	10
孝善 9	孫順埋兒興德王代	1	5
計		30	137

위에서 紀異篇의 7條가 나달여초 太祖代의 사실에 대한 기록이므로,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삼국유사 각 편당 고려시대 관계기사는 1條 내지 2條 기록된 것에 불과한데 塔像篇에는 13條나 수록되어 있으며 이는 탑상편 전체 31條의 40%를 넘는 분량이다. 게다가 塔像篇의 거의 모든 기사 말미에는 그 유적들의 당시 상황을 간략하게나마 기재해 놓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 탑상편은 삼국시대에 관한 기사라기보다 오히려 고려 후기 당시의 古蹟踏査記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佛蹟에 얽힌 通時代의인 서술을 하고 있어서, 일연의 고려시대인식을 파악하려는 목적에 대해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또한 고려관계의 29개조에 나오는 기사의 내용을 세분해 보면, 한 條에 여러 시기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술한 바와 같이 64개의 항목이 검출된다. 이제 그 64개 항목을 다시 시대순으로 배열하고 세 시기로 나누어 다음 장에서부터 그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고려시대의 시기구분에 대해서는 각기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본고

에서는 太祖代부터 顯宗代까지를 고려시대 초기, 德宗代부터 毅宗代까지를 고려시대 중기, 明宗代부터 恭讓王代까지를 고려시대 후기로 보고, 고려 후기에서도 元宗代 이전까지를 武臣執權期라고 부르고자 한다.

## II. 고려 초기에 대한 역사인식

앞 장에서 설명한 고려시대 관계기사 64개 항목 중에서 고려 초기에 해당하는 것은 28개이며, 그 항목들을 분류한 것이 <표2>이다. 이제 <표2>의 기사들의 내용을 중심으로 일련의 고려 초기에 대한 역사인식을 정리해 보자.

우선 太祖의 고려 개국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볼 때, 前代인 신라의 정통이 고려에 의하여 포용되었다는 점과 太祖가 佛法을 옹호하여 건국 및 후삼국 통일에 도움이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天賜玉帶는 新羅三寶의 하나이고 眞平王이 天皇으로 부터 받은 것으로서 분열되어 있던 재래의 巫俗信仰을 王室主導 아래 佛敎에 攝化하여 신라의 天命的 神聖性을 상징하는 기물인데,<sup>15)</sup> 金傅가 이를 바쳐 太祖가 內庫에 收藏하였다.<sup>16)</sup> 또한 金傅는 신라의 百僚들을 이끌고 고려에 투항하였으며 太祖는 新羅宗室의 여자를 맞아 들어 王后로 삼았다.<sup>17)</sup> 이처럼 고려가 신라의 정통을 포용하였다는 사실을 기록한 반면에, 後百濟에 대해서는 「橫賊」이라고 지칭하기도 하고<sup>18)</sup> 後百濟甄萱條에도 太祖가 후백제를 攻伐하여 항복시켰으며 누우치는 神劍의 목숨을 살려 주었다는 정도의 기술을 하였다. 한편 고려는 궁예의 후고구려의 後身이므로 고구려관계의

15) 高翊晉, 앞 논문, pp.35~39

16) 《三國遺事》 권1 紀異2 天賜玉帶條

「高麗四年丁酉五月 正承金傅獻鑄金粧玉排方腰帶一條 長十圍 鑄鑿六十二 曰是眞平王天賜帶也 太祖受之藏之內庫」

17) 《三國遺事》 권2 紀異2 金傅大王條

「王率百僚歸于我太祖 香車寶馬連亘三十餘里 道路填咽 觀者如堵 太祖出郊迎勞(中略) 初王納土來降 太祖喜甚 待之以厚禮 使告曰 今王以國與寡人 其爲賜大矣 願結婚於宗室 以永甥舅之好 王答曰 我伯父億廉有女子 德容雙美 非是無以備內政 太祖娶之 是爲神成王后金氏」

18) 《三國遺事》 권5 孝善9 孫順埋兒條

「眞聖王代 百濟橫賊入其里 鐘亡寺存」

〈표2〉 삼국유사소재 고려 초기 관계기사 분류

時 代	篇 名	條 目 名	記 事 內 容	
太祖代	王曆 紀異	太祖	太祖 즉위한 다음 해 사찰창건 활발	
		樂浪國	樂浪郡夫人·樂浪公主	
		五伽耶	天福五年庚子(940) 五伽耶名の 변경	
		新羅始祖赫居世王	天福五年庚子(940) 辰韓六部名の 변경	
		天賜玉帶	清泰四年丁酉(937) 金傅가 天賜玉帶를 마칩	
		金傅大王	신라의 투항	
		俊百濟甄萱	후백제의 공벌	
		駕洛國記	忠至·英規의 首露王陵廟 제사권 탈취 소동	
		塔像	三所觀音衆生寺	崔殷誠, 太祖마라 上京
		前後所將舍利	尹質의 五百羅漢像	
	普羅禪師의 佛經			
	馱和尚의 大藏經			
	伯嚴寺石塔舍利	曦陽山旣讓和尚 來住十年		
	有德寺	崔彥搗의 崔有德 眞影 掛安		
義解	寶壤梨木	寶壤의 鵲岬寺(雲門禪寺) 창건		
神呪	明朗神印	廣學·大緣의 海賊 禳鎮		
孝善	孫順埋兒	후백제 橫賊의 弘孝寺 石鐘 노략		
定宗代	塔像	伯嚴寺石塔舍利	開運三年丙午(946) 康州界任道大監柱 貼	
光宗代	義解	寶壤梨木	開運三年(946) 雲門山禪院長生標塔公文	
	塔像	皇龍寺九層塔	第三霹靂	
10C중엽	前後所將舍利	皇龍寺塔災之日 通度寺石鐘의 감응		
	紀異	駕洛國記	長遊寺 설치당시 王后寺의 몰락	
景宗代	塔像	洛山二大聖	野火連延到此山 唯二聖殿獨免其災	
	紀異	金傅大王	冊尚父誥, 開寶八年(975) 十月	
成宗代	紀異	駕洛國記	金海府量田使 趙文善의 부정	
	塔像	三所觀音衆生寺	主寺 釋性泰, 觀音菩薩의 도움으로 시 주받음	
顯宗代	避隱	包山二聖	成梵의 萬日彌陀道場 개창당시의 神異	
	塔像	皇龍寺九層塔	第四重成	

전승이 있기도 할텐데 이에 대한 역사적 관심은 결여되어 있다.

太祖의 佛法 옹호에 대해서도 여러가지로 전하고 있다. 태조는 즉위하여 松岳으로 移都한 해에 10개의 큰 사찰을 개창하고 그 후에도 많은 사찰을 세웠다고 하며,<sup>19)</sup> 특히 이 기사가 王曆에 기재되어 있어 더욱 강조된 느낌이 있다. 또한 寶壤이 중국에서 傳法하고 돌아와서 「三韓亂亡間」에 허물어진 大鵝岬 등의 五岬을 부흥하여 鵝岬寺를 창건하자 五岬田東 500結을 헌납하여 후원하고 雲門禪寺라고 賜額하였다.<sup>20)</sup> 태조의 후원 여부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태조 6년에 入朝使 尹質이 五百羅漢像을 後唐으로부터 가져오고,<sup>21)</sup> 普耀禪師가 吳越로부터 大藏經을 신고와서 海龍王寺를 開山하고,<sup>22)</sup> 태조 11년에 默和尚이 入唐하여 대장경을 가지고 왔다고 하여<sup>23)</sup> 太祖代에 佛法이 제법 융성하였음을 전하고 있다.

太祖가 불교 옹호를 표방하여 민심을 수습하면서 상당한 덕을 입었다고 보이는데, 王曆篇에서는 太祖 즉위 후의 사찰 개창을 명기하고 나서 그 말미에 「丙申統三」이라고 기록하여 후삼국 통일과의 연관성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太祖가 淸道까지 東征해와서 犬城의 山賊을 敗降시킬 때 寶壤의 易制之術 조언이 주요했음을 알 수 있으며,<sup>24)</sup> 태조창업 당시에 海賊이

19) 《三國遺事》 권1 王曆1 太祖條

「戊寅六月齋死 太祖卽位于鐵原京 己卯 移都松岳郡 是年 創法王·慈雲·王輪·內帝釋·舍那 又創大禪院〔即普濟〕·新興·文殊·圓通·地藏 前十大寺 皆是年所創 庚辰乳岩下立油市 故今俗利市云乳下 十月創大興寺 或系壬午 壬午又創日月寺 或系辛巳 甲申創外帝釋·神衆院·興國寺 丁亥創妙△寺 己丑創龜山 庚寅安(以下闕佚)」

20) 《三國遺事》 권4 義解5 寶壤梨木條

「羅代已來 當郡寺院 鵝岬已下中小寺院 三韓亂亡間 大鵝岬·小鵝岬·所寶岬·天門岬·嘉西岬等五岬皆亡壞 五岬柱合在大鵝岬 祖師知識〔上文云寶壤〕大國傳法來還(中略) 畢創寺而住焉 因名鵝岬寺 未幾太祖統一三國 聞師至此創院而居 乃合五岬田東五百結納寺 以淸泰四年丁酉 賜額曰雲門禪寺 以奉袈裟之靈蔭」

21) 《三國遺事》 권3 塔像4 前後所將舍利條

「後唐同光元年癸未 本朝太祖卽位六年 入朝使尹質所將五百羅漢像 今在北崇山神光寺」

22) 앞 책, 같은 조

「羅末 普耀禪師再至吳越 載大藏經來 卽海龍王寺開山祖也」

23) 앞 책, 같은 조

「又天成三年戊子 默和尚入唐 亦載大藏經來」

24) 《三國遺事》 권4 義解5 寶壤梨木條

「初師入唐廻 先死于推火之奉聖寺 適太祖東征至淸道境 山賊嘯聚于犬城 驕傲不格



와서 어지럽게 하므로 廣學·大緣等의 大德이 佛力으로 물리쳤다고 한다.<sup>25)</sup> 즉 태조의 건국에 승려들의 도움이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一然이 고려 초기의 전반적인 사회상 및 그 성격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를 살펴 보고자 한다.

고려 초기의 사회상에 대해서 삼국유사의 찬자는 기본적으로 혼란기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위기를 극복하여 前代 이래의 명맥을 이어가는 데는 佛力の 도움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불교문화와 밀착되어 있는 신라문화 전통의 계승유지에 강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신라 말의 혼란기로부터 고려 초의 초창기에 이르는 과도기에, 쇠약해진 舊支配傳統 및 그에 속한 인물들은 국가의 公權力에 의해 약간의 경제기반을 확장받기도 하지만, 결국은 佛力·陵廟 등의 陰助에 의해 前代 이래의 명맥을 계승한다는 기사가 여러 군데 나타난다. 新羅始祖赫居世王條의 辰韓六部와 五伽耶條의 五伽耶는 太祖 天福 5년(940)에 그 이름이 개칭당하면서 국가의 인정을 받았고, 雲門山禪院은 定宗代에 당당하게 국가 공권력에 의해 사방의 長生標를 공인받았다.<sup>26)</sup> 그러나 首露王陵廟屬田은 오히려 成宗代에 金海府量田使의 주청에 의해 그 結數가 30결에서 15결로 축소당하고 그나마 관리의 부정으로 더 깎였다가 陵廟의 영험으로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한다.<sup>27)</sup> 崔殷誠은 견훤의 경주침입에 의한 난리 때 佛力에

太祖至于山下 問師以易制之述 師答曰 夫犬之爲物 司夜而不司晝 守前而亡其後 宜以畫擊其北 祖從之 果敗降]

25) 《三國遺事》 권5 神呪6 明期神印條

「及我太祖創業之時 亦有海賊來擾 乃請安惠朗融之齋·廣學大緣等二大德·作法護鎮」

26) 《三國遺事》 권4 義解5 寶壤梨木條

「天福八年癸酉(太祖即位第二十六年也)正月日 清道郡界里審使順英大乃末水文等柱貼公文 雲門山禪院長生 南阿尼帖 東嘉西峴(中略)又開運三年丙辰 雲門山禪院長生標塔公文一道 長生十一 阿尼帖·嘉西峴·敵峴·西北賈峴(一作面知村)·北瀦足門等」

27) 《三國遺事》 권2 紀異2 駕洛國記條

「淨化二年 金海府量田使中大夫趙文善申省狀稱 首露陵王廟屬田結數多也 宜以十五結仍舊貫 其餘分折於府之役丁(中略) 後人奉使來 審檢厥田 才十一結十二負九束也 不足者三結八十七負一束矣 乃推鞠斜入處 報告內外官 勅理足支給焉」

의지한 덕택으로 그 아들 丞魯를 살릴 수 있었고,<sup>28)</sup> 成宗代에 衆生寺의 승려 性泰는 경제상의 곤란으로 절을 떠나려 하다가 觀音菩薩의 도움으로 시주를 받아 절의 폐기를 막을 수 있었다.<sup>29)</sup> 또한 義湘·梵日의 故事가 얹혀 觀音塑像과 正趣石像이 있던 洛山의 두 聖殿은 고려 초기에 野火가 이 산에 옮겨 붙었어도 화재를 면할 수 있었다.<sup>30)</sup>

이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 前代, 특히 불교문화와 밀착된 신라 이래의 명맥이 佛力에 의해 이어지고 있음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신라 지향성은 끈질기게 나타난다. 草溪의 伯巖禪寺는 신라 전성기에 경주 35金入宅의 하나인 北宅의<sup>31)</sup> 願堂이었다가 오랫동안 폐기되었는데 나말여초에 陽孚和尚·兢讓和尚 등에 의해 그 명맥이 근근이 유지되고 있었고,<sup>32)</sup> 신라의 관리였던 崔殷誠은 경순왕을 따라 고려에 들어와서 大姓이 되어 후사를 계속 이었다고 한다.<sup>33)</sup> 신라 大大角干 崔有德의 願堂인 有德寺에는 그 遠孫 崔彥搆에 의해 眞影이 걸리고 碑가 세워졌으며,<sup>34)</sup> 明朝神印條(神呪篇)에 廣學·大緣은 神印宗 승려로서 太祖를 따라 上京하여 焚修하다가 상을 받았는데 그들은 金庾信家系의 願刹인 新羅京城 동남의 遠源寺에 안장되었다. 또한 景宗은 敬順王의 딸을 妃로 삼고 金傅를 尚父로 책봉하였다고 하며, 찬자는 「冊尚父誥」의 全文까지 게재해 놓고 있다.<sup>35)</sup>

28) 《三國遺事》 권3 塔像4 三所觀音衆生寺條 참조

29) 앞 책, 같은 조

30) 《三國遺事》 권3 塔像4 洛山二大聖觀音正趣調信條

「大中十二年戊寅(858)(中略)後百餘年 野火連延到此山 唯二聖殿獨免其災 餘皆燬燼」

31) 《三國遺事》 권1 紀異2 辰韓條 참조

32) 《三國遺事》 권3 塔像4 伯巖寺石塔舍利條

「但古傳云 前代新羅時 北宅廳基捨置茲寺 中間久廢 去丙寅年中 沙木谷陽孚和尚 改造住持 丁丑遷化 乙酉年 曠陽山兢讓和尚 來住十年 又乙未年却返曠陽 時有神卓和尚 自南原白崙藏來入當院 如法住持」

33) 《三國遺事》 권3 塔像4 三所觀音衆生寺條

「是爲丞魯 位至正匡 丞魯生郎中崔廡 廡生郎中齊頹焉 自此繼嗣不絕 殷誠隨敬順王入本朝爲大姓」

34) 《三國遺事》 권3 塔像4 有德寺條

「新羅大大角干崔有德 捨私第爲寺 以有德名之 遠孫三韓功臣崔彥搆 掛安眞影 仍有碑云」

35) 《三國遺事》 권2 紀異2 金傅大王條

여대까지 논급한 것들을 종합하여 一然의 고려 초기에 대한 역사인식을 살펴볼 때, 그는 고려 태조의 佛法 옹호와 佛力の 영험에 의하여 나말여초의 혼란기를 타개해 나갈 수 있었다고 보았고, 그에 따라 불교와 밀착되어있던 신라의 盛代文化가 근근이 계승될 수 있었다고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Ⅲ. 고려 중기에 대한 역사인식

삼국유사소재 고려 중기 관계기사인 23개 항목을 시대별로 분류한 것이 <표3>이다. 단 感通篇 郁面婢念佛西昇條는 그 고려관계기사에 시대표시가 없어서 연대추정이 매우 어려운데, 나오는 인물 중에 承宣 벼슬을 가진 자가 있어서 추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承宣은 고려 顯宗 14년에 생겨서 忠烈王 2년에 없어진 관직명이므로 그 존속시기는 대략 고려 중기 초부터 무진집권기 말에 해당하는데, 그 내용상 彌陀淨土 계통의 사찰을 重創하는 시대분위기이므로 고려 중기의 일이었다고 추정하여 <표3>에 포함시키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臺山五萬眞身條에서도 太祖代의 인물로 보이는 信義(梵日의 門人) 이후에 암자가 오랫동안 폐지되었다가 중창된 것이 月精寺라고 하니, 일단 고려 중기의 사실로 간주해도 좋을 것이다.

이제 <표3>에서 우선 前後所將舍利條의 고려 중기 관계기사를 보면, 고려 초기 普耀禪師가 중국에서 大藏經을 수입한 것에 대해서 宣宗代 어떤 사람의 讚詩가 있고 毅宗代 漢南管記 彭祖遜의 詩·跋이 있어서, 불교의 東漸은 실로 여기서 비롯되었다면서 普耀禪師를 찬미하고 있다.<sup>36)</sup> 또한

「太祖之孫景宗佑 聘政承公之女爲妃 是爲憲承皇后 仍封政承爲尚父 太平興國三年 戊寅崩 諡曰敬順 冊尚父語曰(下略)」

36) 《三國遺事》 권3 塔像4 前後所將舍利條

「大宋元祐甲戌 有人眞讚云 偉哉初祖 巍乎眞容 再至吳越 大藏成功 賜銜普耀 鳳詔四封 若問其德 白月清風 又大定中 漢南管記彭祖遜留詩云 水雲蘭若住空王 況是神龍穩一場 畢竟名藍誰得似 初傳像教自南方 有跋云 昔普耀禪師始求大藏於南越(中略) 然則像教之東漸 實始乎此 漢南管記彭祖遜題」

〈표 3〉 삼국유사소재 고려 중기 관계기사 분류

時 代	篇 名	條 目 名	記 事 內 容
靖宗代	塔像	皇龍寺九層塔	第四霹靂
	"	天龍寺	崔齊安의 天龍寺 重修
文宗代	紀異	駕洛國記	金官知州事文人의 駕洛國記 撰
	塔像	皇龍寺九層塔	第五重成
	"	伯巖寺石塔舍利	住持 釋秀立의 院中常規十條 제정
宣宗代	興法	寶藏奉老普德移庵	祐世僧統 義天의 詩·跋
	塔像	迦萊佛宴坐石	延禧宮錄事 金希寧의 大一曆法
	"	前後所將舍利	普耀禪師에 대한 有人眞證
	"	"	義天의 天台教觀 수입
憲宗代	塔像	皇龍寺九層塔	第五霹靂
肅宗代	塔像	皇龍寺九層塔	第六重成
	"	皇龍寺鐘	重成新鐘 長六尺八寸
睿宗代	興法	寶藏奉老普德移庵	眞樂公 留詩在堂 文烈公 著傳行世
	塔像	前後所將舍利	入貢使 鄭克永等의 佛牙 수입
	"	"	慧照國師의 遼本大藏 수입
	義解	心地繼祖	睿王의 九者一簡 辨설
	感通	仙桃聖母隨喜佛事	金富弼과 王黼의 대화
毅宗代	塔像	前後所將舍利	漢南管記 彭祖述의 普耀禪師 찬미
	"	五臺山文殊寺石塔記	文殊寺懸板의 白雲子記
	義解	寶壞梨木	清道郡致仕戶長 金亮辛등의 長壽
	"	心地繼祖	本朝文士 金寬毅의 王代實錄二卷
시대미상	感通	郁面婢念佛西昇	大師懷鏡·承宣劉碩 등의 法王寺 重營
	塔像	臺山五萬眞身	水多寺長老 有緣의 月精寺 重創

睿宗代 慧照國師는 왕명을 받고 西學하여 遼本大藏三부를 구입해 오고, 宣宗代 祐世僧統 義天은 宋에 들어가 天台教觀을 많이 가지고 나왔다는 등의 사건을 열거하고나서 佛敎의 東漸이 기쁘다며 讚詩를 덧붙이고 있다.<sup>37)</sup> 특히 睿宗代에 入貢使 鄭克永·李之美 등이 佛牙를 입수해 왔는데<sup>38)</sup>

37) 윗 책, 같은 조

「本朝睿廟時 慧照國師奉詔西學 市遼本大藏三部而來 一本今在定惠寺〔海印寺有一本 許參政宅有一本〕 大安二年 本朝宣宗代 祐世僧統義天入宋 多將天台教觀而來 此外方冊所不載 高僧信士往來所費 不可詳記 大教東漸 洋洋乎慶矣哉 贊曰 華月夷風 尚隔煙 鹿園鶴樹二千年 流傳海外眞堪賀 東震西乾共一天」

38) 앞 책, 같은 조

그 유래에 대하여 긴 설명을 하고 있다. 즉 원래 이 佛牙는 신라시대에 義湘法師가 帝釋宮에서 빌어나 致敬하고 唐 大內에 안치해 둔 것인데, 宋 徽宗朝에 斥佛運動이 일어나 바다에 버리려는 것을 고려 사신이 뇌물을 주고 사서 국내로 들여와서, 睿宗이 이를 內殿에 안치하고 매년 행차할 때마다 瞻敬하였다고 한다.<sup>39)</sup> 이로 보아 고려 중기에 왕실을 중심한 불교 문화 수입은 대단히 적극적이었으며, 그에 대한 일연의 찬사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불교문화의 활발한 수입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고려 중기 관계기사들을 일별하면, 귀족사회의 안정 속에서 나타내어주어 끊어진 新羅의인 佛敎傳統들이 재정비되어가는 것에 관한 기사가 거의 대부분이다.

그런 例로서 皇龍寺九層塔은 여러 차례 벼락을 맞아 파괴되었어도 고려 顯宗·文宗·肅宗代에 제4차·제5차·제6차에 걸쳐 重成된 것을 전하고 있으며,<sup>40)</sup> 신라 말기에 경순왕을 따라 上京했던 경주인 崔殷誠의 曾孫이고 崔承老의 孫子인 崔齊顔이 靖宗代 경주 南山 남쪽의 天龍寺를 重修하고 이를 크게 후원하고 있음을 전하고 있다.<sup>41)</sup> 그런데 황룡사 9층탑이나 천룡사는 新羅精氣의 핵심적인 것으로서, 9층탑은 각 층마다 인접국가나 민족이 대응되어 신라가 이를 진압하기 위한 상징적 기념물이었으며, 천룡사는 지리적으로 天災를 진압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이 절이 파괴되면 신라국은 곧 망할 것이라고 인식될 정도였는데 羅季에 殘破되었던 것이다. 또한 신라 景德王代에 주조된 皇龍寺鐘도 고려 肅宗代에 그 규모가 작아

「大宋宣和元年己卯〔睿廟十五年〕入貢使鄭克永李之美等所將佛牙 今內殿置奉者是也」

39) 앞 책, 같은 조

「後至大宋徽宗朝 崇奉左道(中略)于時適有本朝使者至宋聞其事 以天花茸五十領·紵布三百疋 行賂於押缸內史 密授佛牙 但流空甕 使巨等既得佛牙來奏 於是睿宗大喜 奉安于十員殿左掖小殿 常鑰匙殿門 於香燈于外 每親幸日 開殿瞻敬」

40) 《三國遺事》 권3 塔像4 皇龍寺九層塔條

「至本朝光宗即位五年癸丑十月 第三霹靂 現宗十三年辛酉 第四重成 又靖宗二年乙亥 第四霹靂 又文宗甲辰年 第五重成 又憲宗末年乙亥 第五霹靂 肅宗丙子 第六重成」

41) 《三國遺事》 권3 塔像4 天龍寺條

「來生寺大聖所乳崔殷誠之子承魯 魯生肅 肅生侍中齊顔 顔乃重修起廢 仍置釋迦萬日道場 受朝旨 兼有信書願文留于寺 既卒 爲護伽藍神 顔著靈異 其信書略曰(中略) 重熙九年六月日 具衡如前署 按重熙乃契丹興宗年號 本朝靖宗七年庚辰歲也」

지긴 했으나 新鐘으로 重成되었다고 한다.<sup>42)</sup>

駕洛國記條를 보건대 首露王陵은 신라 文武王代에 王位田이 지금되는 등 우대되었던 것으로서 나말에 忠至 일파의 세력에 의해 제사지낼 권리를 박탈당할 뻔했으나 陵廟의 영험으로 되찾았고, 成宗代에도 王位田을 半減당하는 등 혼란스러웠으나, 文宗代에 金官知州事文人이 駕洛國記를 지어 그 사정을 상세히 기록함으로써<sup>43)</sup> 그 상황이 안정 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보인다.

伯巖寺石塔舍利條에는 신라시대에 경주 北宅의 願堂으로서 설치된 伯巖寺가 신라 下代에 이미 폐지되었다가 나말여초에 근근이 명맥을 이어오고 있었는데 文宗代에 와서 住持 得奧微定大師 釋秀立이 院中常規十條를 정하면서 재정비되었음을 기록하고 있고,<sup>44)</sup> 郁面婢念佛西昇條에는 景德王代 阿干 貴珍이 法王寺를 창건하고나서 오랫동안 폐허로 되었으나 大師 懷鏡이 承宣 劉碩, 小卿 李元長과 같이 발원하여 古神社를 헐어 그 재목으로 法王寺를 重營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다.<sup>45)</sup> 또한 신라 善德女王代에 慈藏法師가 文殊의 말대로 五臺山에 와서 眞身을 보려다가 못 보고 돌아간 적이 있는데, 나말여초에 梵日의 門人인 信義頭隨가 그 곳에 암자를 짓고 살았을 뿐이고 그 후로 오랫동안 명맥이 이어지지 않았으나, 水多寺의 長老有緣이 이를 重創하여 지금의 月精寺로 되었다고 한다.<sup>46)</sup> 즉 신라의 불교

42) 《三國遺事》 권3 塔像4 皇龍寺鐘芬皇寺藥師奉德寺鐘條

「新羅第三十五景德大王 以天寶十三年甲午 鑄皇龍寺鐘 長一丈三寸(中略) 肅宗朝 重成新鐘 長六尺八寸」

43) 《三國遺事》 권2 紀異2 駕洛國記條

「駕洛國記(文廟朝大康年 金官知州事文人所撰也 今略而載之)」

44) 註 32)의 내용과 아래 문장 참조

《三國遺事》 권3 塔像4 伯巖寺石塔舍利條

「又成雍元年十一月 當院住持得奧微定大師釋秀立 定院中常規十條 新豎五層石塔 眞身佛舍利四十二粒安適 以私財立寶 追年供養條(下略)」

45) 《三國遺事》 권5 感通7 郁面婢念佛西昇條

「景德王代康州善士數十人 志求西方 於州境創彌陀寺 約萬日爲契 時有阿干貴珍家 一婢名郁面(中略) 扇面去後 貴珍亦以其家異人托生之地 捨爲寺曰法王 納田民 久後廢爲丘墟 有大師懷鏡 與承宣劉碩·小卿李元長 同願重營之 鏡躬事土木 始輸材 夢老父遺麻葛履各一 又就古神社 諭以佛理 斫出祠側材木 凡五載告畢 又加緘獲 蔚爲東南名藍 人以鏡爲貴珍後身」

46) 《三國遺事》 권3 塔像4 臺山五萬眞身條

문화전통이 고려 중기에 제정비되어가는 면에 주목한 기사는 이처럼 풍부하게 드러나 있다.

또하나 특이한 것은 寶藏奉老普德移庵條에 나타난 撰者의 태도이다. 고구려의 멸망을 예견하고 完山州 孤大山으로 南來하여 거주하였던 普德에 대하여 眞樂公 李資玄의 留詩가 景福寺에 있고 文烈公 金富軾의 著傳이 유행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祐世僧統 義天의 詩·跋에 「高麗藏王 惑於道教 不信佛法」(방점 필자)하여 普德이 方丈을 남쪽으로 날렸기 때문에 고구려가 망했다고 한 내용을 기록해 두었다.<sup>47)</sup> 즉 「高麗」라는 국가명칭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高句麗繼承意識은 李資玄·金富軾·義天이 모두 깨넘치 않은 듯하고 오히려 佛法의 수호라는 면을 더 증시하고 있으며, 일연은 고려 중기 귀족들의 바로 그러한 성향에 적극 同感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한편 睿宗은 桐華寺에서 眞表의 佛骨簡子 八·九者二聖簡을 빌어서 瞻敬하다가 九者一簡을 분실하고 牙로 대치하여 本寺로 돌려보낸 적이 있는데, 일연 당시에 그가 보기에는 八者·九者 二簡의 新古를 구분하기 어려우며 당시의 桐華寺所傳簡자와 나말에 釋冲이 대조에게 바쳤다는 表律師 戒簡 189枚와의 同異가 未詳하다고 적고 있다.<sup>48)</sup> 예종이 佛骨簡子 한 개를 분실하고 牙로 대신해서 돌려보냈다는 사건의 전말에는 王室에 의한 權力型 不正의 기미가 보이는데, 일연은 그에 대해 얼버무리며 옹호하는 느낌이 있다.

「(慈藏法)師以貞觀十七年來到此山 欲親眞身 三日晦陰 不果而還 (中略) 後有頭陀信義 乃梵日之門人也 來尋藏師憩息之地 創庵而居 信義既卒 庵亦久廢 有水多寺長老有緣 重創而居 今月精寺是也」

47) 《三國遺事》 권3 興法3 寶藏奉老普德移庵條

「時普德和尚住盤龍寺 憫左道匹正國祚危矣 屢諫不聽 乃以神力飛方丈 南移于完山州孤大山而居焉 即永徽元年庚戌六月也 未幾國滅 今景福寺有飛來方丈是也云云(已上國史) 眞樂公留詩在堂 文烈公著傳行世 (中略) 大安八年辛未 祐世僧統到孤大山 景福寺飛來方丈 禮普聖師之眞 有詩云 涅槃方等教 傳受自吾師云云 至可惜飛房後 東明古國危 跋云 高麗藏王 惑於道教 不信佛法 師乃飛房 南至此山 後有神人 現於高麗馬嶺 告人云 汝國敗亡無日矣 具如國史 餘具載本傳與僧傳」

48) 《三國遺事》 권4 義解5 心地繼祖條

「(上略) 既唱而得簡於林泉中 即其地構堂安之 今桐華寺鐵堂北有小井是也 本朝睿王嘗取迎聖簡 致內瞻敬 忽失九者一簡 以牙代之 送還本寺 今則漸變同一色 難卜新古 其質乃非牙非玉 (中略) 又按本朝文士金寬毅所撰王代宗錄二卷云 羅末 新羅大德釋沖 獻太祖以表律師袈裟一領·戒簡百八十九枚 今與桐華寺所傳簡子未詳同異」

이상으로 고려 중기에 대하여 언급된 기사들을 종합해 보면, 一然은 고려시대 중기의 사회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王室의 후원에 의해 중국으로부터 佛經·佛牙 등이 수입되고, 羅末에 끊어졌거나 또는 근근이 명맥만 이어오고 있던 신라적인 불교전통들이 귀족사회 안정의 토대 위에 재정비되어 나가는 것을 흡족하게 느꼈던 듯하다. 이러한 점에서 일연은 佛法의 수호·계승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그에 따라 불교전통에 보다 친밀한 王室 및 新羅의인 것에 호의적이었고 고구려에 대한 계승의식은 문제삼지도 않았다. 또한 金富賦·李資玄 등에 대한 서술태도로 보아 유교적 합리주의에 대한 거부감이나 硬化된 고려 중기 귀족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 등도 희박했다고 보인다.

#### Ⅳ. 무신집권기에 대한 시대인식

삼국유사소재 고려시대 관계기사 중에서 무신집권기에 해당하는 것은 13개 항목으로서 <표4>에 시기별로 정리하였는데, 그 거의 모두가 塔像篇에 소속되어 있는 점이 이채롭다. 아마도 이는 이 시대의 거의 전 기간을 체험하고 元宗代 이후로 출세하기 시작한 일연이 구체적인 불교유물에 대한 것으로 언급을 제한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그만큼 표현도 조심스럽게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이 시대에 대한 인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전체 내용을 살펴 볼 때, 明宗代의 사실인 三所觀音衆生寺條의 占崇에 대한 설화나 魚山佛影條의 萬魚寺 창건 연기설화처럼 佛教·神異에 대한 경탄을 기록한 것도 있지만, 高宗代 이후 대다수의 기사는 신라시대 이래로 깊은 佛教의 因緣을 맺고 있는 塔像·佛舍利들의 보존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신라 眞興王은 前佛時代의 伽藍터에 皇龍寺를 창건하였는데 그 곳에는 예전 迦葉佛의 宴坐石이 남아 있었으며 이는 創寺 이래로 잘 보존되어 왔



〈표4〉 삼국유사소재 무신집권기 관제기사 분류

時 代	篇 名	條 目 名	記 事 內 容
明宗代	塔像	三所觀音衆生寺	不解文字僧 占崇의 讀文
	"	魚山佛影	萬魚寺의 창건
高宗代	塔像	迦葉佛宴坐石	本朝名士 吳世文의 歷代歌
	"	"	西山大兵以後 宴坐石의 夷沒
	"	皇龍寺丈六	今兵火已來 大像與二菩薩皆融沒
	"	皇龍寺九層塔	西山兵火 塔寺丈六殿宇皆災
	"	前後所將舍利	通度寺石鑑에 대한 曹溪無衣子 留詩
	"	"	上將軍 金利生등의 通度寺佛舍利 瞻禮
	"	"	江華遷都 당시 內殿佛牙 분실소동
	"	洛山二大聖	西山大兵 당시 寺奴 乞升의 二珠 보존
	義解	賣壞梨木	庚寅年晉陽府貼 各道禪敎寺院始創年月形止 齋檢成籍
元宗代	塔像	前後所將舍利	大朝使佐本國皇華의 通度寺佛舍利 瞻禮
	"	"	開京出陸 당시 禪師 心鑑의 佛牙 보존

으나, 西山(蒙古)大兵의 침략 이후 땅에 파묻혀 간신히 지면 높이로 평평하게 되었을 뿐이다.<sup>49)</sup> 皇龍寺丈六條로 보아 西竺 阿育王이 보낸 釋迦三尊像의 모형과 재료가 佛緣깊은 신라땅에 도착했으므로 眞興王은 丈六尊像을 주조하여 완성하고 그 거룩한 인연을 기렸는데, 몽고의 兵火 이후로 大像과 두 菩薩像이 모두 녹아 없어지고 말았다.<sup>50)</sup> 또한 慈藏法師가 중국에서 神人의 계시를 받고 귀국하여 善德王代에 이웃 나라들이 항복하고 九韓이 와서 조공할 것을 誓願하므로, 그에 따라 皇龍寺九層塔을 완공하고 그 刹柱속에 자장이 五臺에서 가져온 佛舍利 一百粒을 三分해서 봉안하여 이웃 나라에 위세를 떨쳤으며, 그 이후 신라·고려시대를 거치며 5차례 벼락을 맞고 6차례 重成을 하면서 보존해 왔는데, 西山의 兵火로 모두

49) 《三國遺事》 권3 塔像4 迦葉佛宴坐石條  
 「玉龍集及慈藏傳·與諸家傳紀皆云 新羅月城東龍宮南 有迦葉佛宴坐石 其地即前佛時伽藍之墟也 今皇龍寺之地即七伽藍之一也 (中略) 既而西山大兵已後 殿塔煨燼而此石亦夷沒 而僅與地平矣」

50) 《三國遺事》 권3 塔像4 皇龍寺丈六條  
 「今兵火已來 大像與二菩薩皆融沒 而小釋迦猶存焉」

소실되었다고 한다.<sup>51)</sup>

이러한 사건 전말을 전하는 태도로 볼 때, 일연은 신라시대에 깊은 佛緣으로 조성되고 고려시대에 걸쳐 소중하게 보존되어 오던 황룡사의 보물들이 몽고의 兵火로 소실된 것을 아쉬워 하지만, 몽고에 대한 적개심은 적극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으며 마치 벼락맞은 것과 같은 차원으로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다. 오히려 땅에 파묻히긴 했으나 아직 迦葉佛宴坐石이 남아 있고, 丈六尊像은 녹아 없어졌으나 그 모형인 小釋迦像은 남아 있고, 九層塔도 소실되었지만 그 刹柱記와 여러 차례의 重成 경험은 남아 있다는 것을 기록함으로써 훗날의 전통계승 및 재정비의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

洛山二大聖條로 보아, 西山大兵의 침입 당시 襄州城으로 옮겨 넣었던 洛山の 觀音·正趣二聖眞容은 아마도 파괴된 듯하나, 義湘의 水精念珠·如意寶珠의 二珠는 住持禪師 阿行으로부터 그를 탈취한 寺奴 乞升의 誓願덕에 보존될 수 있어서 溟州城 監倉庫 안에 보관되었다. 그러나 大禪師 覺猷가 奏上하기를 그 곳도 함락될 위기에 처해 지킬 수 없으니 洛山三珠를 대궐로 운반해 오자고 하니, 主上이 윤허하여 夜別抄 10人을 보내 그것을 가져다가 內府에 안치하고 그들 10人에게는 자기 銀一斤, 米五石을 주었다고 한다.<sup>52)</sup>

이러한 사건 전개를 볼 때, 몽고의 침입이라는 거대한 힘 앞에서 저항도 못하고 다만 二寶珠의 영력에라도 매달려 보려는 王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태도를 볼 수 있다. 襄州城·溟州城의 함락이나 그로 인한 백성들의 피해를 막아 볼 생각은 못하고 住持禪師 阿行이 寶珠를 챙겨 도주하

51) 《三國遺事》 권3 塔像4 皇龍寺九層塔條

「又高宗十六年戊戌冬月 西山兵火 塔寺丈六殿宇皆災」

52) 《三國遺事》 권3 塔像4 洛山二大聖觀音正趣調信條

「及西山大兵已來 癸丑甲寅年間 二聖眞容及二寶珠 移入襄州城 大兵來攻甚急 城將陷時 住持禪師阿行〔古名希玄〕以銀合盛二珠 佩持將逃逸 寺奴名乞升奪取 深埋於地 誓曰 我若不免死於兵 則二寶珠不現於人間 人無知者 我若不死 當奉二寶獻於邦家矣 甲寅十月二十二日城陷 阿行不免而乞升獲免(中略) 至戊午十月 本業老宿祇林寺住持大禪師覺猷奏曰 洛山三珠 國家神寶 襄州城陷時 寺奴乞升埋於城中 兵退 取納監倉使 藏在溟州營庫中 今溟州城殆不能守矣 宜輸安御府 主上允可 發夜別抄十人 率乞升 取於溟州城入安於內府 時使介十人各賜銀一斤·米五石」

려던 소행이나, 寺奴 乞升이 그를 빼앗아 寶珠를 위협하는 주술을 걸어 자기 목숨을 건지려는 행동이나, 覺獸·高宗이 夜別抄를 보내 寶珠만을 빼내오는 소행은 모두 비슷한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一然도 몽고의 힘을 숙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覺獸등의 소행을 불가피하면서도 다행스런 것이었다고 인식하였던 듯하다. 당시 파견한 夜別抄는 崔氏武人政權의 실질적 통솔아래 있었던 것으로서 그들에게 후한 상을 내리면서 부려야 하는 王室의 입장을 볼 때, 그러한 노력은 처연한 느낌을 지 준다.

前後所將舍利條의 通度寺佛舍利에 관한 기사와 內殿佛牙에 관한 기사는 무신집권기에 대한 인식의 파악에 많은 도움이 된다. 高宗 22년에 上將軍 金利生과 侍郎 庾碩이 낙동강 以東을 지휘할 때 왕명을 받고 通度寺에 와서 계단 위 石鑊을 들고 佛舍利를 瞻禮하려고 하였는데, 寺僧이 단류하자 억지로 군사를 시켜 들쳐보았다. 瑠璃筒 속에舍利 4粒이 있는데 그 통에 금간 데가 있어서 庾碩이 水精函子를 내놓아 같이 보관하였다고 한다. 여기에 대해 一然은 古記에 舍利 百枚의 3분의 1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4개 뿐인 것은, 사리의 隱現이 사람에 따라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니 괴이할 바가 아니라고 평하고 있다.<sup>53)</sup> 왕실의 명을 받은 上將軍·侍郎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억지로 石鑊을 들쳐보고 미리 준비해 간 水精函子에 바꿔 넣고 舍利가 4개뿐이라 하며 이를 기록하게 한 것은 王室에 의하여 권력을 명자한 不正의 소지가 있는데, 一然은 이를 佛舍利的 神異의 탓으로 돌리고 있으니 여기서도 일연의 왕실에 대한 비호적인 입장 또는 시대전체에 대한 체념을 엿볼 수 있다.

元宗代에는 大朝(元)使佐와 本國皇華가 다투어 와서 瞻禮하고 사망에서 물러와서 참배하였는데, 眞身舍利 4枚 외에 變身舍利는 모래처럼 부서져

53) 《三國遺事》 권3 塔像4 前後所將舍利條

「近有上將軍金利生·庾碩侍郎 以高廟朝受旨 指揮江東仗節到寺 擬欲攀石瞻禮 寺僧以往事難之 二公令軍士固舉之 內有小石函 函襲之中 貯以瑠璃筒 筒中舍利只四粒 傳示瞻敬 筒有小傷裂處 於是庾公適蓄一水精函子 遂奉施兼藏焉 識之以記 移御江都四年乙未歲也 古記稱百枚分藏三處 今唯四爾 既隱現隨人多小 不足怪也」

서 石鑪 밖에 나타나 있으면서 異香이 풍기어 여러 날 없어지지 않는 일이 종종 있으니, 이는 末季의 한 奇事라고 한다.<sup>54)</sup> 이로 보아 일연은 몽고를 「大朝」라고 변상하게 표현했지만, 그들까지 佛舍利에 침례하는 것을 자랑하면서도 그들이 본국 관리들과 어울려 다니는 시대적 상황을 舍利에 빗대어 末季라고 비판한 것이 아닐까 한다.

고려 궁실의 內殿佛牙는 睿宗代에 수입 안치되어 보존되었던 것인데, 高宗 19년 江華遷都 당시에 분실하고 말았다. 그 책임은 左番調者 金瑞龍 및 內殿上守 등에 있었는데, 수사 도중 瑞龍 집의 마당 안으로 佛牙函이 날아들어서 瑞龍과 上守를 모두 처벌코자 하였으나 晉陽府(崔瑀의 幕府)가 만류하므로 사면하였다. 그 후 齋를 개설하여 佛牙를 敬拜하였는데 晉陽府가 白銀을 주어 그에 안치시켰으며, 主上의 비 가지 추측 중 도둑이 집안에 숨겨놓았으리라는 추측이 맞아 떨어졌다며 放聲大哭하자 모두들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sup>55)</sup> 이러한 사건의 전말로 보아 佛牙를 빼돌린 것에 崔氏政權이 밀접하게 연루되었다고 보이며 王室은 그에 대해 의심을 할 뿐 속수무책이었음을 알 수 있고, 일연도 그러한 상황에 대해 同情的이었다고 보인다.

또한 元宗 11년 開京遷都 당시에도 어수선하였는데 十員殿監主禪師 心鑑이 몸의 위험을 무릅쓰고 佛牙函을 가지고 나와 무사히 보존할 수 있었다고 한다.<sup>56)</sup> 그런데 당시의 「出都之亂」에 「顛沛之甚 過於壬辰」하였다고

54) 嶺 載, 같은 조

「自至元甲子已來 大朝使佐本國皇華 爭來瞻禮 四方雲水 輻湊來參 或舉不舉 眞身四枚外 變身舍利 碎如砂 磔現於境外 而異香郁烈 彌日不歇者 比比有之 此末季一方之奇事也」

55) 嶺 載, 같은 조

「至壬辰歲移御次 內宮恐遽中忘不收檢(中略)有司議 金瑞龍及兩殿上守皆誅 晉陽府奏云 因佛事不合多傷人 皆免之(中略)晉陽府以白銀合貯而安之 時主上謂臣下曰 朕自亡佛牙已來 自生四疑 一疑天宮七日限滿而上天矣 二疑國亂如此牙既神物且移有緣無事之邦矣 三疑貪財小人盜取函輻棄之溝壑矣 四疑盜取珍利而無計自露匿家家中矣 今第四疑當之矣 乃放聲大哭 滿庭皆洒涕獻壽 至有煉頂燒臂者 不可勝計」

56) 嶺 載, 같은 조

「又至庚午出都之亂 顛沛之甚 過於壬辰 十員殿監主禪師心鑑亡身佩持 獲免於賊難 達於大內 大賞其功 移授名刹 今住水山寺」

함은 三別抄亂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일연은 이를 「賊難」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 武人政權의 종말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음을 보여 준다.

무신집권기에 대한 기사들을 종합해 볼 때, 一然은 王室의 護佛意志에 대해 우호적이며 한편 崔氏武人政權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라는 것을 찾아 낼 수 있으며, 몽고의 침입 때문에 중요한 불교문화 전통들이 소실된 것을 아쉽게 여기면서도 몽고의 침입이나 간섭에 대한 저항감을 표현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를 시대적 숙명으로서 末季라고 체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불교전통을 재정비할 수 있는 여지는 아직 남아 있다는 고무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 맺 음 말

여태까지 삼국유사소재 고려시대 관계기사를 뽑아내고 시대별로 분류하여 이를 분석함으로써 一然의 고려시대인식을 살펴 보았다.

우선 자료의 분포상태를 볼 때, 삼국유사에는 230여 항목이라는 많은 고려시대 관계기사가 존재하며, 그 중 대부분은 단순한 역사지명고중이나 사적의 당시 상태에 대한 간단한 언급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전통문화가 당시까지도 자취를 남기고 있다는 점을 재인식시키고자 한 그러한 기사들을 제외하고도, 삼국유사에는 고려시대의 사건들을 직접 기술한 60여 항목의 기사가 존재하며 이는 본고의 분석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 기사들 중에서 고려 초기에 해당하는 것을 뽑아서 살펴 볼 때, 일연은 盛代의 신라수도 경주를 이상적인 佛國土의 구현이었다고 보고 후삼국 시대부터 고려 초기까지를 과도기적인 혼란시대로 보았기 때문에, 그를 타개해 나가는 힘은 신종 고려 태조의 佛法 옹호, 佛力の 영험이라고 생각했고 그에 따라 신라문화전통이 근근하게 계승되어가는 면모를 주목하였다.

고려 중기에 대해서 일연은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왕실의 후원에 의해 중국으로부터 佛經·佛牙 등이 수입되고 귀족사회의 안정

에 따라 신라적인 불교전통들이 본격적으로 재정비되어 나가는 것을 흡족하게 바라보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무신집권기에 대해서 일연은 기본적으로 末季라고 보고 있으면서도, 崔氏武人政權이 쫓겨나고 몽고잔섭하에서나마 王政復古가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왕실의 후원을 받아 불교문화전통을 再燃할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므로 일연은 佛敎至上主義의인 세계관을 가지고 과거 및 현재를 바라보고 있었다고 보인다. 고려 중기에 왕실은 佛法의 융성에 적극적으로 있고 왕실의 후원을 받던 교종계통의 불교계는 문벌귀족체제와도 밀접하게 얽혀져 있었는데 일연은 그 시기를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러한 시대적 상황을 타파한 무신집권을 일연이 부정적으로 인식했던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일연의 이러한 고려시대인식을 통해서 삼국유사의 찬술의도를 논하건대, 그는 왕실과 귀족사회 전반에 걸쳐 佛法이 융성하였던 신라시대의 전통을 고려 후기의 당시 사회에 재인식시켜 불교를 재흥코자 하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설화 형태의 역사서술체재를 채택하였던 것이다. 또한 고려 중기의 사회 및 문벌귀족들에 대해 긍정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당시의 저술인 三國史記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반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다만 佛敎의인 史話들을 채록하여 그를 보완코자 하였을 뿐이다.

한편 몽고에 대한 저술태도를 보건대 그에 대한 강렬한 거부 의식이나 적극적인 민족의식은 나타나지 않고 몽고에 시달리는 백성들에 대한 연민도 직접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佛敎 자체가 원래 신라시대의 발전과정을 거치면서 國家主義의인 면모를 띠고 있었고, 당시 사회분위기에 민족의식이 팽배하여 불교적으로 윤색된 檀君神話등이 유행하고 있었기 때문에,<sup>57)</sup>

57) 高翊晉, 註 3)의 논문, pp. 46~52 참조

다만 위 논문에서 단군신화의 대부분의 주요 요소가 朱蒙說話등의 영향으로 後代에 形成되었다고 논한 것은, 좀 더 세심한 논거의 뒷받침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된다.

모든 불교적인 설화들을 집성하려던 일연의 손에 의해 그것들이 수록되었을 뿐이 아닌가 한다. 즉 삼국유사에는 민족적인 요소가 부분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지만 이는 일연이 적극적으로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그는 정권을 쥐고 다스리는 왕실과 귀족들이 佛敎의 傳統的인 權能을 재인식해 주기를 바랐던 것이다.